세미나 보고서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일 시 전기전자공학부 4 12191529 장준영 05/07 세미나 주제 PPA focused Semiconductor Design for the HPC/Al Era

세미나 핵심내용

1) 목적: 팹리스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와 기술 발전 흐름을 이해

2) 주요 내용

#1. Homebrew Computer Club

- 스티브 잡스 & 스티브 워즈니악
- Silicon Valley

#2. Fabless의 시작

- Morris Chang, TSMC(1987)
- Foundry가 탄생하면서 Fabless 사업 모델 역시 고안되었다.

#3. On Device Al

- 높은 전력수요
- 천문학적 Al Cloud

#4. Transistor Implementation

- Planar -> FinFet -> GAAFET -> MBCFET
- From "Planar" to "3D"

#5. Challenges

- VDD 줄이기
- Noise 없애기: PLL LDO, Oversampling techniques to limit internal PLL range.
- Lack of Freedom: FinFET으로 가면서, 배치의 자유도가 감소.
- 강연자: 4lynx 담당자님.

고찰

이번 세미나는 반도체 산업의 역사적 맥락부터 최첨단 기술 트렌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반도체가 단순한 기술 산업을 넘어 문화적·구조적·미래 지향적인 혁신의 집합체임을 체감하게 해주었다.

Fabless 모델의 시작은 산업 구조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 Morris Chang이 창립한 TSMC는 단순한 파운드리 기업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설계자들이 창의적으로 설계에 집중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 주역이다. 이는 오늘날 AI, 모바일, 차량용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SoC들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기반이 되었다. Fabless와 Foundry의 분업 구조는 이제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On-Device AI의 부상은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사한다. 기존의 AI Cloud는 천문학적 전력 소모와 인프라 비용을 수반하지만, 이를 사용자 단말로 분산시키는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 반응 속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곧 반도체 칩이 처리할 데이터의 양과 복잡도, 열 문제를 더욱 증가시키며, 전력 효율성과 집적도, 발열 제어 등의 과제가 더욱 고도화됨을 의미한다.

트랜지스터 구조의 진화는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한계를 돌파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이다. Planar에서 FinFET, GAAFET, 그리고 최근의 MBCFET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구조 자체를 2D에서 3D로 재편하면서 면적 효율성과 전류 제어 능력을 극대화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설계의 자유도가 감소하고, VDD 감소 및 노이즈 제어와 같은 복합적인 신뢰성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 특히 FinFET 이후에는 배치 제약과 함께 설계 자동화 도구의 한계도 같이 논의되며, 기술 진보가 항상 설계 자유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PLL LDO, 오버샘플링 기법 등 고급 회로 기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반도체 회로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 순한 공정 기술만이 아닌, 시스템 레벨의 전력·신호 관리 기술이 함께 진보해야 함 을 시사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산업 구조, 공정 발전, 회로 설계의 복합성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미래 반도체 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나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